



전주매일



전북 6·3 지선 대진표 확정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등록 마무리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돌입... 29~30일 사전투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해 모두 마감되면서 전북 지역 주요 선거구의 후보자 대진표가 확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진보당 백승재 후보가 등록했으며, 무소속에서는 김관영·김성수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호 1번, 국민의힘은 기호 2번, 조국혁신당은 기호 3번이다.

전북도지사 무소속 기호 부여와 관련하여 김관영 후보가 7번 김성수 후보가 6번을 부여받았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는 천호성 후보와 이남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대부분 본격적인 다자 구도로 치러진다.

전주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후보와 국민의힘 조양덕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무소속 김광중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 군산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재준 후보, 조국혁신당 이주현 후보, 무소속 고영섭

후보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익산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와 조국혁신당 임형택 후보, 무소속 박경철·황세연 후보 등 4명이 경쟁한다. 정읍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화수 후보와 조국혁신당 김민영 후보, 무소속 김재선 후보 등 3명이 등록했다.

남원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중모 후보와 조국혁신당 강동원 후보, 무소속 황의돈 후보 등 3명이 출마했고, 김제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주 후보와 무소속 이병철 후보 등 2명이 등록했다.

완주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후보와 무소속 국영석 후보가 맞붙는다.

진안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와 무소속 고준식·전춘진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무주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황인홍 후보와 무소속 한송희 후보가 경쟁한다.

장수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훈식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영수 후보가 등록했으며, 임실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후보와 무소속 정

인준 한병락 후보가 출마한다.

순창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일 후보와 진보당 오은미 후보가 등록했고, 고창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후보와 조국혁신당 유기상 후보, 무소속 장명식·정원환 후보 등 4명이 경쟁한다. 부안군수 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 권이현 후보, 국민의힘 김성태 후보, 조국혁신당 김성수 후보, 무소속 김종규 후보 등 4명이 등록을 마쳤다.

광역·기초단체장뿐 아니라 광역·기초의원 후보 등록도 모두 마무리되면서 전북 지역 지방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5월 29~30일 사전투표를 거쳐 6월 3일 본투표를 통해 민선 9기 지방 권력의 행방이 결정된다.

도민들은 경기침체와 민생 위기 속에서 전북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상대 비방보다는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비전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바라고 있다.

/이만호 기자



“양파 최저생선비 보장하라”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의 한 양파밭에서 열린 '양파 최저생선비 보장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양파밭 같이열기' 투쟁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시 제곱)

전북 첨단산업 인프라 '절반의 완성'

에너지기술평가원·KIST 본원·고등과학원 등 필요성 대두
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북 첨단산업 경쟁력 높일 시험대”

전북특별자치도의 현대자동차 9조원 투자 등 미래첨단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의 부재로 산업 생태계 완성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5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조성 중이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기안전연구원·재료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연구 기관이 집중해 있다. 그러나 에너지 R&D 과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도권에 위치해 현장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도 주관 기관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구조적 모순이다.

평가원이 전북에 자리할 경우 에너지 R&D 기획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에너지산업융합단지와의 시너지를 통한 에너지 특화기업 추가 유치도 기대된다.

정읍에는 첨단방사선연구소와 독성과학연구소, 방사선 기업지원 인증기관 등이 위치해 방사선 원천기술 연구와 비임상 시험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반면 임상과 치료 단계를 담당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없어 연구에서 산업화로 이어지는 고리가 단절돼 있다.

현재 의학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 분원만 운영 중으로, 서남권에는 방사선 전문 의료기관이 전무하다. 원자력의학원이 유치되면 연구·비임상·임상·치료가 완성되고, 2030년 1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선 의료기기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서남권의 방사선 비상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공공의료 기능도 동시에 확보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현재 전북본원이 운영 중이며, 바이오·이차전지·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원과 협력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본원이 서울에 있어 인력·장비의 통합 운용이 어렵고, 협력 사업도 분산 운영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전북은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개의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결한 지역으로, KIST 본원 유치 시 구심점 역할이 가능하다.

본원이 전북으로 이전해 본원과 통합되면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광역 연구개발특구 편입을 통한 기술사업

화 지원 확대와 연구소기업 설립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부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서울 흥릉보다 전북이 KIST의 성장 여건 개선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고등과학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전(KAIST)·대구(DGIST)·광주(GIST)·울산(UNIST)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기초과학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북은 수학적 모델링과 계산과학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 R&D 지원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넘어서는 전북의 혁신 인프라에서 기초과학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구조적 약점으로 꼽힌다.

고등과학원이 전북에 들어하면 피지컬AI·재생에너지·바이오 등 지역 핵심 산업과 접목돼 원천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단순 생산·실증 기지를 넘어 국가적 지식생산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KIST와 함께 제2의 흥릉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전북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의 연구·실증 인프라는 갖춰지고 있지만 이를 기획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완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배치가 아니라 전북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통 국토·도시정책 전문가' | 문성요 신임 새만금청장 부임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문성요(57·사진)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18일 공식 부임한다.

신임 문 청장은 1968년 제주 출생으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토교통부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관 등 정책 기획과 집행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지내며 대규모 국책 사업 관리 역할을 입증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핵심 요직인 국토도시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차례로 지내며 국토 및 도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발탁되기 직전까지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로 재직하며 민간 분야의 실무 경험도 쌓은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문성요 신임 청장은 행정 중심 복합도시의 기반 구축과 부산·울산·경남의 마스터 플랜 수립 등 국토 도시 개발 분야의 정통 관료라며 “새만금이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인璞에서는 문 청장이 지닌 풍부한 국토 정책 개발 경험과 행정 전문성이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새만금을 전북 발전과 연계한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